



지명으로 보는 전주 백년(상)

전주문화원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상)

인 쇄 · 2005년 10월 20일
발 행 · 2005년 12월 25일

발 행 인 · 서 승
조 사 · 집 필 · 김규남, 이길재
인 쇄 인 · 서정환

발 행 · 전주문화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4-7
 전화 / (063) 255-3360 팩스 / (063) 255-3370

인 쇄 · 신아출판사
 전화 / (063) 275-4000 팩스 / (063) 274-3131
 등록 / 1984년 8월 17일 제28호

비매품/전주시 보조금을 받아 출판했습니다.

■ 박기남 / 지명을 통한 지역문화의 새로운 이해	서 승(전라문화원장)..... 2
-----------------------------	--------------------

제1부 전주의 지세와 성곽도시의 형성

1. 지형적 특성.....	9
가. 전주의 산.....	9
① 기린공원, 인후공원, 체련공원.....	10
② 산성공원, 완산공원, 다가공원, 화산공원.....	18
나. 전주의 물길과 다리.....	29
다. 덕진제와 전주의 풍수.....	42
2. 전주부성과 자연부락.....	47
가. 성곽도시의 형성.....	47
나. 조선 말엽의 행정구역.....	52
다. 주요 건물의 배치와 성 밖 장의 형성.....	56
라. 자연부락의 위치.....	61
마. 주요 도로.....	67

제2부 근대화 이후의 도심확장

1. 시구개정과 시가지 계획	74
가. 성곽의 파괴	74
나. 1차 시구개정	77
① 도로의 개설	77
② 상권의 변화	79
다. 2차 시구개정과 행정 명칭 변경	81
① 도로 개수와 철도 개설	81
② 행정구역 명칭의 변경	83
라. 3차 시구개정과 시가지 계획	86
마. 기타	90
2. 해방과 동란 직후 공백기	92
가. 난민 정착 마을의 형성	92
나. 행정 명칭의 변경	96
3. 도심 확장 시기	100
가. 1차 도심 확장	100
① 00촌의 형성	106
② 동의 통폐합	107
나. 2차 도심 확장	108
다. 오늘의 전주	112

제3부 제1차 조사지역

1. 서학동	117
2. 완산동	130
3. 교동	139
4. 풍남동과 전동	153
가. 풍남동	156
나. 전동	159
5. 중앙동과 다가동	164
가. 중앙동	164
나. 다가동	169
6. 경원동, 고사동, 태평동	175
가. 경원동	175
나. 고사동	178
다. 태평동	180
7. 노송동	183
8. 인후동	195
9. 진북동	212
10. 금암동	222
11. 서신동	230
12. 덕진동	236
■ 참고자료	253
■ 발문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 김규남	254
■ 색인	258

아랫가재미, 가운데가재미, 윗가재미를 통칭 가재미 혹은 개재미라고 하며, 가재미 뒷산에는 예전에는 묘가 많았었다고 한다. 지금은 도시개발에 밀려 옛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지역 토박이들조차 마을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 가장동(可葬洞), 가장리(可長里)라고도 불리는 가재미는 풍수지리설에 의거하여 마을의 지형이 가재미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가재미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하고, 가장동(可潛洞), 가장곡(可葬谷)이 구전되어 오는 동안에 가재미골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과거에 이곳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재미골은 가장곡이었을 개연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전주시지 1997, 117쪽)

윗가재미는 굴충목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을로, 현 온고을 중학교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가운데가재미는 윗가재미와 아랫가재미 사이에 있는데, 이곳에서 동쪽으로 고개를 넘어가면 석수리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한배미, 굴충목, 안덕원을 갈 수 있었다고 한다. 가운데가재미에는 노 씨들 제실과 '시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앰은 마을에 있는 공동우물로 '나무 땀김서' 쉬는 자리였다고 한다.

아랫가재미는 가재미골짜기와 진버들골짜기가 만나는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아랫가재미는 지금의 기린초등학교와 그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으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하평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가재미골짜기를 흘러내리는 모래내는 아랫가재미에서부터는 제법 그 물줄기가 굽어지는데, 하평을 지나면 모래내는 처음으로 옛 동문터에서 전주 고등학교, 서낭맹이를 지나 진안으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된다. 이곳에 있었던 다리를 도마다리, 도매다리라고 하였으며, 인후교(麟後橋)라고도 불렀다. 도마다리 주변으로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다리의 이름을 따서 마을의 이름을 도마다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다리는 원래는 구수다리라고 하였는데, 도마다리라 불리게 된 이유가 구전되어 온다.

전주 고등학교 북동쪽 선황당 고개를 넘어 내림길 거리에는 기린봉에



서 흐르는 냇물에 놓인 조그마한 다리가 있다. 초포(草浦) 조세라는 마을에는 경주김씨 일문이 여러 대를 이어 부자로 살았으나 욕심만 많고 성질이 표독스러워 인근 마을에서 인심을 잃고 살았다.

어느 날 중이 시주를 청하면 시주는 고사하고 콩을 넣은 전대로 머리통을 묶은 다음 물을 붓는 것이었다. 콩은 물을 머금어 불어나기 마련이어서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픈데 이를 김씨네 청년들은 구경거리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번번이 고통을 당하던 중들이 김씨네가 잘사는 원인을 캐보니 김씨네 선산이 기린봉 허리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구수(구유) 같은 모양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그 다리를 구수다리라 부르고 있었다. 이에 명칭을 고치어 도마다리라고 하면 명당과는 인연이 끊어지게 되므로 소는 구수를 잃게 되어 부자는 저절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스님과 상자는 구수다리 옆에 앉아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돈 한냥씩을 주면서 '도마다리를 잘 건너는구나'라는 말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시주를 나서는 스님들에게도 부탁하여 시주를 하는 사람에게도 구수다리를 도마다리로 부르면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니 누구나 이렇게 부르도록 일러두었더니 며칠 만에 구수다리란 이름은 씻은 듯이 없어지고 도마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김씨 문중에서는 돈을 거둬 도마다리에 큰 잔치를 베풀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도마다리라 하면 먹을 것이 생길 것으로 알고 더욱 더 도마다리로 부르니 조세마을 김씨 문중은 잔치를 치르기 위하여 가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도마다리란 이름은 더욱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도마다리에서 안골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모래내는 국대부인골에서 흐르는 실개울과 만나게 된다. 모래내와 국대부인골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이 만나는 곳에는 새터라는 마을이 자연부락을 이루고 있다.

모래내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옛 북문터, 지금의 오거리에서 시작하여 농고앞, 인후아파트를 지나 고산으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된다. 1935년 도시계획에 의하여 고산선이 개수되면서 이곳에 다리가 놓이는데, 이 다리를 모래내다리라고 하였다. 모래내다리는 한자로 풀어 써서 사천교(沙川橋)라고도 하였다. 이 다리에서 지금의 모래내 시장을 바라보고 오

큰쪽 산자락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마을은 모래내로 사천(沙川), 아랫비단리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모래내는 도당산에서 인후아파트, 심방죽거리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자락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 산줄기의 끝자락 앞으로 흐르는 모래내에 1962년 서중로터리에서 놓고 앞까지 고산선의 일부가 확장 개설되면서 모래내다리가 하나 더 놓이게 된다. 이때부터 원래있었던 모래내 다리는 작은모래내다리라 부르고 후에 놓인 모래내다리는 큰모래내다리라 부르게 되었으며, 마을 이름인 모래내도 이후에 각각 작은모래내, 큰모래내라 부르게 되었다.

큰모래내 다리에서 모래내는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흐르게 되는데, 500여 미터 지점에서 남북로에 있는 진북동 우체국에서 매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금암 2동사무소로 가는 길과 만나게 된다. 이 위치에 놓인 다리가 진발다리이다. 큰모래내 다리와 진발다리 사이에는 30여 년 전부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모래내 주변에서 물건을 펼쳐 놓고 팔기 시작하였고, 점점 그 규모가 커지면서 모래내시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림 128〉 모래내시장

모래내시장 입구 사거리에는 모래내가 복개되어 다리를 찾아 볼 수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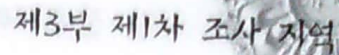
지만, 이 사거리에는 큰모래내다리가 있었다. 큰모래내에서 북개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작은모래내다리, 내려가면 진밭다리이다.

진밭다리를 지나면 모래내는 금암교, 숲정이교, 진덕교를 지나 전주천의 서천에 합류하게 된다. 물탕골에서 도마다리에 이어지는 실개천은 택지개발에 의하여 이미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도마다리, 작은모래내다리, 큰모래내다리, 진밭다리, 금암교에 이르는 모래내는 모두 복개되어 내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리들의 모습도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모래내는 인후동과 진북동, 금암동과 진북동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천(川)이다. 작은모래내다리에서 진밭다리까지는 진북동과 인후동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진밭다리에서 전주천과 합류하는 지점까지는 금암동과 진북동의 경계를 이룬다.

선린사 왼쪽으로 뻗어내린 산자락에는 방죽목, 마당재, 인봉리, 기자촌, 서낭대이, 도덕골, 무랑물, 보문촌, 신촌, 반촌이 자리잡고 있다. 마당재, 인봉리, 기자촌, 무랑물, 신촌은 행정구역상 노송동에 속해 있고, 반촌은 진북동에 속한다. 이 산자락은 따라가다 보면 처음으로 만나는 마을이 방죽목이다.



〈그림 129〉 방죽목이 있었던 자리



팔죽배미 이야기 : 옛날 천성이 게으른 홀아비 이곳 저곳에 청혼을 해도 선뜻 나서는 혼처가 없어 그러저럭 살아온 것이 오십 세를 넘기게 되었다. 그런데 옛날 총각 때 어머니가 쭈어 주던 팔죽맛을 잊지 않고 연연해 했다. 그리하여 이웃 아낙네에게 간청하여 1년만 팔죽을 쭈어 달라고 하고 그 대가로 논 한 마지기를 주기로 했다. 1년이 넘고 보니 이빨은 다 빠지고 김칫거리조차 씹을 수 없는 잇몸이 되어 팔죽 쭈어 주기 계약을 1년 연장하게 되었다. 그 이듬해 숨을 거두기까지 팔죽을 쭈어 주던 옆집 아낙네는 자연히 홀아비의 논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팔죽배미라고 했다고 한다. 아예 팔죽배미라 이름 붙여진 고라실 논 옆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해버린 여인네의 집 근처를 지금도 팔죽배미골이라고 부르고 있다.(전주시지 1997, 131쪽)

한배미에 살고 있는 한 제보자는 팔죽배미를 합죽배미라고도 하는데, 연방죽 근처에 부채공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합죽선을 만들어 팔아 그 근처에 있는 논을 합죽배미라고 했다고 한다. 석수리에서 서북쪽으로는 진버들이라는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진버들은 지금의 노동청종합정부청사가 들어선 길을 따라 길게 형성된 마을이었다. 아랫가재미에서 지금의 노동부 종합청사 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골짜기가 진버들골짜기이고, 이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마을이 진버들이다. 골짜기가 길고, 유지앵소혈(柳枝鶯巢穴)이 있어 진버들 혹은 장유(長柳)라고 한다. 진버들골짜기에는 우마차가 다닐 정도의 소로가 나 있었다고 하는데, 이 길이 현재 기린사거리에서 노동부종합청사를 지나 동부우회도로에 닿는 큰길이다.



〈그림 132〉 진구렁